



3면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임명식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6월 17일 목요일 (음 5월 8일) 제280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 집단면역 형성에 '한 발 더'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도민 30% 넘어서

지난 2월 26일 고위험군 대상 접종 시작한 후 111만에 일귀내 1차 접종자 58만4653명 중 16만246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 30세 미만 보건의료인 대상 접종 시작 예방접종 '가속도'

도내 1회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30%를 넘어서면서, 전북도는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다.

전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단장 최훈 행정부지사)은 16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이 전 도민의 32.41%인 58만4653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6월 16일 0시 기준 총 58만4653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그 중 총 16만246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이는 지난 2월 26일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 후 111일 만에 일귀내 성과를

특히, 전국 평균(25.7%)보다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어, 도내 집단면역 달성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또한, 지난 15일부터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경찰, 소방, 해경 등) 의료기관,

약국 종사자, 취약시설 입소·종사자 등의 화이자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16일부터는 30세 미만 보건의료인 대상 Moderna백신 접종도 시작하면서 예방접종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장인 최훈 행정부지사는 "1차 누적 예방접종자가 58만 명을 넘을 수 있도록 참여해주신 도민 여러분과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 등 예방접종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부지사는 이어 "아직 긴장의 끈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예방접종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라 하더라도 군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인지상정·인권, 지역의 상상을 정책으로' 전주시 등 참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은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생중계된다.

전북도는 16일부터 17일까지 2021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이 열린다고 밝혔다. 시전은 16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럼 개막식에서 송하진 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은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생중계된다.

김제·진안·무주, '농촌협약' 대상지

김제 '새만금 희망농촌' 진안 '자립생활 네트워크 강화' 무주 '편리한 생활거점' 수립 향후 전략·활성화계획 보완 내년 상반기 농식품부와 협약

농촌협약에 선정된 김제시는 농경 생태문화와 새만금의 희망농촌을, 진안군은 자립생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무주군은 어디서든 편리한 생활거점 조성을 목표로 예비계획을 수립했다.

향후 전략 및 활성화계획을 올해 말까지 보완해 2022년 상반기중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계획 실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국비 최대 300억 원)하고, 협약사업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조정 등의 역할을 이행하며, 시군에서는 계획의 수립, 농촌지역개발, 농식품산업 육성 등 지역의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협약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하고, 전략·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의 사전 검토·자문, 협약의 이행 지원 등 계획에 대한 조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조호일 도 농촌협력과장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임실군 순창군과 함께 농촌협약을 확대 추진해 농촌지역의 중장기 발전방향이 마련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가 구축돼 농촌지역 주민들도 언제 어디서든 교육·의료·복지 등 기초·복합 생활서비스를 제공받는 우수시계가 될 것"이라며 "향후 행정적·재정적으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산림분야 그린뉴딜 총 220억 투자 도시숲 조성

전북도가 산림분야 한국형 그린뉴딜 사업에 국비 110억원, 지방비 110억원 등 총 220억원을 투자해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도시숲을 조성한다. 전북도는 올해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작년 대비 180% 증가한 국비 110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도내 12개 시·군에 미세먼지 차단숲 15개소, 생활밀착형숲 1개소, 자연인식 그린숲 3개소를 조성한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산업단지, 주요도로변 등 먼지 발생원과 생활권 사이에 숲을 조성해 미세먼지 차단·흡착 효과를 높이고 '생활밀착형숲' 조성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실내외의 정원을 조성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녹색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연인식 그린숲'은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따듯지 조성 사업이다. 허건 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민 생활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없는 청정전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심 녹색인프라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장수 가야봉화터 1500년 만에 '활활'

오성리 봉화유적 축조 주체 금강 상류지역 가야세력 삼국시대 유물 70여점 출토 오늘 발굴현장서 학술회의



장수 봉화대 원경

장수군(군수 장영수)은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의 허가로 호·영남 화합과 상생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 중인 '전북지역 가야문화유산 연구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장수 봉화봉 봉화'의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전주문화유산연구원(원장 유철)은 장수군 의뢰로 올해 4월부터 조사 중인 장수 오성리 가야봉화 유적은 최근 전북 동부산악지대에서 확인된 110여 개소의 삼국시대 봉화 중 하나로서, 금번 발굴조사를 통해 봉화의 축조

cm로써 상부에는 원형의 봉화시설이 남아 있다. 봉화대와 주거공간에서는 밀집과 상문이 시문된 가야토기편, 적갈색 연질토기편, 기와편 등 삼국시대의 유물 70여 점이 출토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봉화대와 관련 시설이 비교적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문헌에 기록된 삼국시대[가야] 봉화의 실체를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굴조사 성과와 검토를 위해 17일 오후 3시에 발굴현장에서 관계 전문가와 함께 학술지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앞으로도 장수지역 가야문화유산 대한 지원을 통해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적들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